

## PA-112

**강원지역에서 질소시비량이 쌀가루 가공용 벼의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이지우<sup>1\*</sup>, 조윤상<sup>1</sup>, 이혜리<sup>1</sup>, 김용복<sup>1</sup>, 황운하<sup>2</sup><sup>1</sup>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sup>2</sup>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서론]**

최근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등 소비 트렌트 변화 및 관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시험은 강원도 중부 및 중북부평야지에서 새롭게 육성된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시비량에 따른 수량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강원도 중부 및 중북부평야지에서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시비량에 따른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강원 춘천시 신북읍과 철원군 동송읍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춘천에서 가루미2는 6월 10일, 신길은 5월 30일에 이앙하였으며, 철원에서 가루미2는 5월 30일, 신길은 5월 10일에 이앙하였다. 질소시비량은 품종별 4처리로서 가루미2는 9, 12, 15, 18kg/10a, 신길은 18, 21, 24, 27kg/10a를 분시비율 50:20:30으로 각각 시비하였다. 생육특성,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수발아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춘천 지역에서 가루미2 및 신길의 질소시비량에 따른 출수기 차이는 없었으나, 철원 지역에서는 가루미2는 질소시비량에 많을수록 출수기가 1~2일 빨라졌으며, 신길은 반대로 1일 정도 늦어진 경향을 보였다. 주당 수수 개수는 춘천과 철원지역 모두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당 립수는 춘천 지역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철원 지역에서는 질소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당 립수 또한 증가하여 가루미2는 18kg/10a에서 128.0개/수, 신길은 27kg/10a에서 114.0개/수였다. 춘천 및 철원지역에서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가루미2의 등숙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길은 시비량에 따른 등숙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루미2는 춘천과 철원지역에서 질소시비량 12kg/10a 처리구의 천립중이 각각 19.9g, 21.0g으로 가장 무거웠다. 신길의 천립중은 춘천 지역에서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가벼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철원 지역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춘천 지역에서 가루미2 및 신길 모두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쌀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신길에서 질소시비량 21, 24, 27kg/10a 처리구의 쌀수량이 각각 704, 700, 708kg/10a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원지역에서 가루미2 및 신길 모두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쌀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발아율은 춘천 지역에서 가루미2 0.8~1.6%, 신길 0.5~0.7% 범위였으며, 철원 지역에서 가루미2 1.7~2.4%, 신길 1.1~2.4% 범위였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사업번호:PJ012960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paizem1987@korea.kr Tel. +82-33-248-6054